

에버랜드·롯데월드, 앞다퉀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최근 호텔 신축을 추진하는 등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에버랜드가 지난해 500억원을 투자해 오픈한 에버랜드의 사파리 시설 '로스트밸리'(왼쪽 사진)와 롯데가 5월말 김해에 4000여억원을 들여 개장한 '김해 롯데워터파크'의 전경.



사진제공 | 에버랜드·롯데월드

공룡 테마파크들, 몸집이 더 거대해진다

2017년까지 에버랜드 내 호텔 신축 해외 관광객 겨냥한 시설 확충 투자 롯데월드, 中 선양에 테마파크 건설 제2롯데월드엔 아쿠아리움 준비 중

삼성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국내 레저산업의 공룡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최근 호텔 신축, 아쿠아리움 오픈, 해외 진출 등 큰 예산을 투입하는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상장추진을 결정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대형 호텔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 에버랜드 부지에 2017년까지 특급 호텔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500억원을 들여 수목양육차로 관람할 수 있는 사파리 시설 '로스트밸리'를 오픈하는 등 시설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호텔

신축은 이러한 테마파크의 시설 확장과는 다른 의미에서 주목 받는다. 업계에서는 에버랜드가 국내 정상급 시설을 자랑하는 테마파크와 워터파크(캐리비안 베이)가 있는 상황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춘다는 것은 내수에 이어 중국 등의 잠재력이 큰 해외 방문객(인바운드) 시장도 겨냥한 투자로 보고 있다. 호텔 신축과 함께 대형 아쿠아리움 추진 역시 해외관광객의 발길을 끌 인프라 강화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우리는 몇년 전부터 시설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호텔 신축 역시 앞으로 국제적인 레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텔 신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아쿠아리움 개발에 대해서는 "에버랜드의 발전을 위해 검토 중인 여러 프로젝트의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가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 조성중인 '롯데월드 선양'의 조경도.

●워터파크·아쿠아리움·해외진출…과감한 투자 올해로 개장 25주년을 맞은 롯데월드의 의욕적인 행보도 눈길을 끈다. 롯데월드는 5월 말 김해에 4000억원을 투자한 초대형 워터파크 '김해 롯데워터파크'를 오픈했다.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없던 영남권에 등장해 캐리비안베이나 오션월드 같은 기존 강자들을 긴장시킨 여세를 몰아 동부산 지역에도 6만평 규모의 워터파크와 놀이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는 대형 아쿠아리움 오픈을 준비 중이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나면 본격적인 아쿠아리움 개관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월31일 중국 선양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옆에는 2016년까지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제2롯데월드의 1.4배 규모로 소풍물, 극장, 테마파크, 호텔,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롯데월드 선양'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해외 방문객이 찾는 인기 관광명소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첫 해외 진출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기아차, 월드컵 승리 기원 온 국민 응원 릴레이 시작

카톡 참여도 가능…도구 제작해 한국전 응원 사용

기아자동차가 2014브라질월드컵 공식 파트너를 기념해 '온 국민 응원 릴레이'를 실시한다.

두 팔을 올리고 내린 2장의 사진을 공식 이벤트 사이트(fifaworldcup.kia.com·사진)에 올리면 다른 참여자들의 사진과 이어져 거대한 응원 릴레이가 완성된다.

카카오톡을 통한 참여 방식도 도입했다. 기아자동차가 카오퍼러스친구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접속하면, 전용 대화 창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렇게 모인 참여사진들로 응원문구를 형상화해 응원도구로 제작, 브라질 현지 교민들이 한국전 응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브라질월드컵이 주로 새벽에 열려 거리응원에 한계가 있다. 거리응원의 장점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구현해내는데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온 국민 응원 릴레이' 캠페인은 역동적인 응원 모습을 담은 TV광고, 디지털 미디어 옥외광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월드컵 승리 기원 파도타기 응원' 등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6월 한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여름철 지독한 겨드랑이 냄새 건조한 상태 유지가 해결방법

액취증 심할 땀 '리포셋 흡입술' 추천

여름만 되면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선 더욱 위축된다. 바로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과 겨드랑이 악취가 심한 액취증 환자들이다. 평소에도 지하철, 차 안,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은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엔 그 증상이 심해져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다.

다한증은 교감신경기능 이상으로 긴장하거나 더울 때 손, 발, 겨드랑이, 얼굴 등에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이다. 손바닥과 발바닥 다한증, 겨드랑이 다한증, 안면 다한증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이 600~700mL인 반면, 다한증 환자들은 2~5L를 흘려 3~8배나 많다.

액취증은 겨드랑이의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박테리아에 의해 지방산으로 분해되면서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겨드랑이 부위의 옷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를 액취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액취증 환자의 50~60%가 다한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욕 자주하고 청결 유지 중요…개선 안 될 땐 전문의 찾아야 세연통증클리닉의 최봉춘 원장은 "다한증과 액취증 환자는 평소에도 목욕을 자주해 청결을 유지하고 땀이 잘 나는 겨드랑이 부위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 흡수가 잘되는 면소재의 속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다"며 "생활습관을 바꿔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한증의 치료법인 '교감신경절단술'은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수술 후 수술부위 이외의 곳에서 땀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액취증 치료의 경우 부분 마취를 통한 리포셋 흡입술(땀샘흡입술)은 재발률이 10% 미만이고 효과가 영구적이라 환자들이 선호한다. 최근 비용이 저렴해진 보톡스 주사요법은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되고 재시술도 가능하다. 땀 냄새 억제제는 단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습진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김재혁 기자 ajapo@donga.com 트위터@ajapo

삼성·LG, 다양한 라인업으로 '태블릿PC 전쟁'

삼성, 갤럭시탭S 2종 7월 전세계 출시 스마트폰+태블릿 '패블릿' 부문 강화 LG, 화면크기 별 G패드 3종으로 경쟁 Q페어·노크코드로 편의·보안성 강화

태블릿PC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 국내 태블릿PC 제조사들은 새 제품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시장공략에 나섰다. 내년 데스크톱 등 PC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능을 갖춘 다양한 라인업으로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삼성 '갤럭시탭S'로 '아이패드'와 정면 승부

삼성전자는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 시장에서도 애플을 넘어선다는 각오다. 그 선봉에 선 제품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프리미엄 태블릿PC '갤럭시탭S', 10.5와 8.4인치 2종으로 구성된 '갤럭시탭S' 시리즈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화질이 뛰어난 것이 특징. 여기에 두께 6.6mm, 무게는 각각 465g, 294g으로 휴대성도 좋다. 7월부터 전 세계에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 미국 최대 서점체인 반스앤노블과 손잡고 새 태블릿PC를 선



▲ LG전자 'G패드' 3종

▲ 삼성전자 '갤럭시탭S 10.5'

보일 계획이다. 7인치 '갤럭시탭4'에 방대한 서적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누크'를 결합한 '갤럭시탭4 누크'다. 이 제품은 8월 미국 내 반스앤노블 700개 매장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태블릿PC 시장을 위협하는 일명 '패블릿'(스마트폰+태블릿) 부문 공략도 강화한다. 최근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한 7인치 스마트폰 '갤럭시W'는 '갤럭시노트'와 '갤럭시그랜드' 시리즈를 잇는 '패블릿'이다. 삼성전자는 5·6인치대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폰블

릿'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내놨다.

●LG, 태블릿PC 시장 재도전 속도

지난해 10월 'G패드 8.3'을 내놓으면서 태블릿PC 시장 재도전에 나선 LG전자도 다양한 화면 크기의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 경쟁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공개한 'G패드 7.0', 'G패드 8.0', 'G패드 10.1' 등 3종의 제품이 그 주인공. 7인치 크기의 'G패드 7.0'으로 휴대성을 중시하는 고객을 잡고, 'G패드 8.0'과 'G패드 10.1'로 대화면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기

는 사용자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공개한 'G패드' 시리즈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손쉽게 연동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Q페어 2.0'과 LG 스마트폰에 적용된 대표 사용자 경험(UX) '노크코드' 기능을 적용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인 것이 강점이다.

이 밖에도 구글이 3D 태블릿PC를 준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프로3'를 공개하는 등 차별화된 기능을 앞세운 태블릿PC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모바일 쇼핑몰 '눈속임' 사라진다

공정위 '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초기화면 또는 개별상품의 상세화면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을 경우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일

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더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모바일 특가'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회원탈퇴, 청약철회 절차도 모바일에서 제공하도록 했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갖추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MPO·한미약품 '빛의소리희망기금' 지원단체 선정

MPO(의사 오케스트라)와 한미약품은 제2회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빛의소리희망기금'의 지원 단체로 청북원(전북 익산)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빛의소리나눔콘서트는 장애인들 예술 교육기금 조성을 위한 MPO의 정기공연이며, 2013년 1회 공연은 시작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체임버와 MPO의 협연, 2014년 2회 공연은 하트체임버 이상재 단장,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강혜정과 MPO의 협연으로 개최됐다. 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빛의소리희망기금은 매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의 심사를 거쳐 후원기관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교육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청북원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됐다.